

No. 8.

원통모양의 유리 전박 피판으로 경부 식도의 재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조병채 · 이정형 · 백봉수

1989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인두암 및 상경부식도암으로 내원하여 종양절제술 후 유리 전박피판으로 경부식도를 재건한 30례를 대상으로 임상조건을 관찰하였다.

남자가 24례, 여자가 6례였고 평균 나이는 62.2세였으며, 임상 추적기간은 최소 10개월, 최대 64개월로 평균 18개월이었다.

수술 후 음식 섭취는 24례(80%)에서 3주부터 가능하였고, 입원 기간은 6주 이내가 25례(83.3%)였다. 5례(16.7%)에서 누공이 형성되었으나 모두 재수술없이 자연 치유되었으며 피판과 식도연결부위 협착은 누공이 늦게 치유되었던 4례(13.3%)에서 발생하였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직후에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의 수술방법에 누공형성의 빈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원통모양을 만들 때 내측에 3mm 간격의 vertical mattress 봉합과 외측에 탈상피한 부분을 내측 봉합선과 어긋나게 중첩시켜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피판과 식도 봉합부 협착 빈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피판의 두개 삼각형 조직이 식도 양측면 봉합부위에 삽입되어 환상 봉합이 예방되었고, 식도 외측면을 유동성이 적은 주위 조직에 4~6군데 고정하여 식도 내경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감시(monitoring) 피판을 밖으로 내 놓아 혈행을 자주 관찰함으로써 혈관 문합부의 혈전 형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경부식도 재건에 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리 전박피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추적 관찰하였고, 그 결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No. 9.

행복직근 유리 근피판술(Free TRAM)에 의한 한국여성의 유방재건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성형외과

안희창 · 김정철 · 박봉권

목적 : 유방암으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적 심볼인 유방을 절제한 후 남은 신체적, 정신적 결손은 여성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유방 재건술중에서 행복직근 유리 근피판술에 의한 유방 재건술 결과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모습을 얻기 위한 술식을 소개하고자 함이다.

재료 및 방법 : 1992년 3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시행한 총 32예의 행복직근 유리 근피판술에 의한 유방 재건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29세에서 58세까지였다. 유방 절제와 동시에 즉시 재건한